

구 스즈키 가문 무가 저택과 순란테이 카페

이 무가 저택은 스즈키 가문의 방계가 살던 곳입니다. 이들은 훗날 도요마의 다테 가문 초대 당주 다테 무네나오로 알려지게 되는 인물인 시라이시 무네나오(1577~1629)의 가신이었습니다. 1604 년에 무네나오가 직책을 맡아 미즈사와에서 도요마로 이주하자 스즈키 가문도 그를 따라 이주했습니다.

건물의 정확한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989 년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1990 년 섬세한 수리 복원이 이루어진 끝에 내부에 ‘순란테이’라는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.

이 주택은 에도 시대(1603~1867) 농촌 건축의 좋은 예로, 목재 마루에 설치된 도요마식 이로리(마룻바닥을 사각형으로 파고 난방·취사용으로 불을 피우는 장치)와 운을 낸 판자로 둘러싸인 공간이 특징입니다. 또한 서랍이 있는 작은 다다미방과 화장용 거울, 그 밖에 스즈키 가족의 기념품이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. 무사 가문답게 창이나 나기나타(일본식 언월도) 등 옛 무기도 벽에 걸려 있습니다.

순란테이(春蘭亭, 춘란정)라는 명칭은 매년 봄에 정원에서 피는 난꽃으로 만드는 춘란차에서 유래했습니다. 방문객은 과거 무사들이 살았던 오랜 역사를 지닌 저택의 정원에서 가벼운 다과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느긋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